

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,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# 서울중앙지방검찰청

전문공보관 이준호

전화 02-530-4780 / 팩스 02-536-5410

## 보도자료

2025. 1. 16.(목)

제 목

**국내 중소기업의 카메라모듈 검사장비 기술을 유출하여 중국 회사로 이직한 사건 수사결과**  
- 한국지사 실제 대표 등 6명 구속 기소, 직원 10명 불구속 기소 -

### 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

피고인, 죄명, 공소사실 요지, 공소제기 일시, 공소제기 방식, 수사경위, 수사상황, 범행경과 및 수사의 의의 등(제11조 제1항)

●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보기술범죄수사부(부장검사 안동건)는 카메라 모듈\* 검사장비를 제조하는 국내 중소기업인 A사의 경영난을 틈타 임직원 20여명이 A사의 영업비밀이자 첨단기술인 그래버\*\* 기술자료 등을 유출하여 중국 회사로 이직한 사건을 수사한 결과,

\* 카메라모듈은 스마트폰, 자동차 등에 사용되는 카메라를 구성하는 부품들인 렌즈, 이미지센서(빛을 전기신호로 변환하는 반도체) 등을 조립한 제품

\*\* 그래버는 이미지센서로부터 받은 디지털 신호를 PC가 고속처리할 수 있는 디지털 영상신호로 바꿔 전송하는 카메라모듈 검사장비의 핵심 장치

- A사의 영업 이사였던 100이 A사 핵심 엔지니어 20여명을 끌어들여 중국 회사인 B사의 국내 영업소로 대거 이직하였고, 그 과정에 A사의 기술자료를 대규모로 유출한 후 B사에서 이를 부정사용해 동종 제품을 개발한 사실을 밝혀내어,

- 범행을 주도한 B사 한국지사 실제 대표 100과 설계팀장 100 등 6명을 구속 기소하고, 범행에 가담한 직원 10명을 불구속 기소하였음

\* 위 16명 중 B사 한국지사 R&D센터 팀장 등 7명은 '24. 10.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업비밀 유출 및 부정사용 범행에 대해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고, 현재 항소심 재판 중

● 앞으로 서울중앙지검은 국내 중소기업과 국가 경제를 위협하는 산업 기술의 국외 유출범죄에 엄정 대응하겠음

# I 사건관계인

## ● 피고인

	피고인	직책 및 역할	처분	비고
1	ㄱ○○	<b>B사 한국지사 실제 대표</b> 장비 개발 주도 등 업무총괄 (A사 영업이사)	'25. 1. 16. 구속 기소	그래버 기술자료 누설 및 부정사용, 설계도면 부정사용
2	ㄴ○○	<b>B사 한국지사 설계팀장</b> <b>설계팀 업무총괄</b> (A사 설계팀장)		설계도면 유출 및 부정사용
3	ㄷ○○	B사 한국지사 영업팀장 해외영업 담당 (A사 영업팀원)	'25. 1. 16. 불구속 기소	그래버 기술자료 유출 및 부정사용
4	ㄹ○○	B사 한국지사 설계팀원 장비 설계 (A사 설계팀원)		설계도면 부정사용
5	ㅁ○○			
6	ㅂ○○			
7	ㅅ○○	B사 한국지사 설계팀원 전장 설계 (A사 설계팀원)		전장도면 유출 및 부정사용
8	ㅇ○○			
9	ㅈ○○	A사 설계팀원 전장 설계		전장도면 누설
10	가○○	<b>B사 한국지사 R&amp;D센터 팀장</b> <b>R&amp;D센터 업무총괄</b> (A사 R&D센터 팀장)	'24. 1. 11. 구속 기소	그래버 기술자료 누설, 유출, 부정사용
11	나○○	B사 한국지사 R&D센터 팀원 그래버 개발 (A사 R&D센터 팀원)		'23. 12. 6. 구속 기소
12	다○○			
13	라○○			
14	마○○	B사 한국지사 R&D센터 팀원 그래버 개발 (A사 R&D센터 팀원)	'24. 1. 11. 불구속 기소	그래버 기술자료 부정사용
15	바○○			
16	사○○			

※ 가○○ 등 R&D센터 7명은 '23. 12.~'24. 1. 기소되어 '24. 10. 1심 선고 (7명 모두 집행유예 등 유죄선고), 쌍방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중

● 피해자 A사

- 전 세계에서 A사를 비롯한 국내 3개 업체만이 C사\*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카메라모듈에 대한 검사장비 그래버를 공급하고 있고, A사의 그래버 기술은 2022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산업기술보호법상 첨단기술로 확인받는 등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

\* C사는 매출기준 세계 1위의 해외 스마트폰 제조기업

<카메라모듈 검사장비(左), 그래버(右) 외관>



※ 카메라모듈 검사장비로 Active Alignment 장비(이미지센서와 렌즈 초점이 일치하도록 정렬), Focusing 장비(렌즈 초점을 조정), Calibration 장비(색감 보정, 손떨림방지), Final test 장비 등이 있음

● 중국 B사

- 리튬이온 배터리 등 2차전지를 제조하는 업체인데, 100의 제안으로 A사 임직원 25명을 영입하여 카메라모듈 검사장비 사업에 진출

II 공소사실의 요지

● 그래버 관련 범행(100, 200 및 가00 등 R&D센터 7명)

- 100, 가00은 '22. 6. A사의 영업비밀인 그래버 부품리스트를 B사에 누설하고, 200 및 가00 등 4명은 '22. 6. A사의 첨단기술이자 영업비밀인 그래버 소스코드 등 기술자료를 유출하고, 100, 200 및 가00 등 7명은 '22. 8. ~ '23. 5. 유출한 그래버 기술자료를 사용해 B사의 그래버를 개발 [산업기술보호법위반, 부정경쟁방지법위반(영업비밀 국외누설등), 업무상배임]

● 설계도면 관련 범행(ㄱ○○ 및 ㄴ○○ 등 설계팀 4명)

- ㄴ○○은 '22. 6. A사의 영업비밀인 설계도면을 유출하고, ㄱ○○ 및 ㄴ○○ 등 4명은 '22. 6.~9. 유출한 설계도면을 사용해 B사의 장비 제안서를 작성 [부정경쟁방지법위반(영업비밀국외누설등), 업무상배임]

● 전장도면 관련 범행(ㄷ○○, ㄹ○○ 및 A사 직원 ㄱ○○)

- ㄷ○○은 '22. 7. A사의 영업비밀인 전장도면을 유출하고, '22. 9. 유출한 전장도면을 사용해 B사의 장비 전장도면을 작성 [부정경쟁방지법위반(영업비밀국외누설등), 업무상배임]
- ㄹ○○은 '22. 9. B사의 장비 개발을 위해 A사의 직원인 ㄱ○○으로부터 A사의 영업비밀인 전장도면을 전달받음 [부정경쟁방지법위반(영업비밀국외누설등), 업무상배임]

### III 수사 경과

- '23. 1. 대검 첩보(국정원 산업기밀보호센터 첩보) 접수
- '23. 5. B사 국내 영업소 등 압수수색
- '23. 12.~'24. 1. B사 R&D센터 7명 기소(4명 구속, 3명 불구속)
- '24. 10. B사 R&D센터 7명 1심 선고
- '24. 2.~12. B사 설계팀, 영업팀 등 조사
- '24. 12. 31. B사 한국지사 대표 ㄱ○○, 설계팀장 ㄴ○○ 구속
- '25. 1. 16. ㄱ○○, ㄴ○○ 구속 기소, ㄷ○○ 등 7명 불구속 기소  
※ 총 6명 구속 기소, 10명 불구속 기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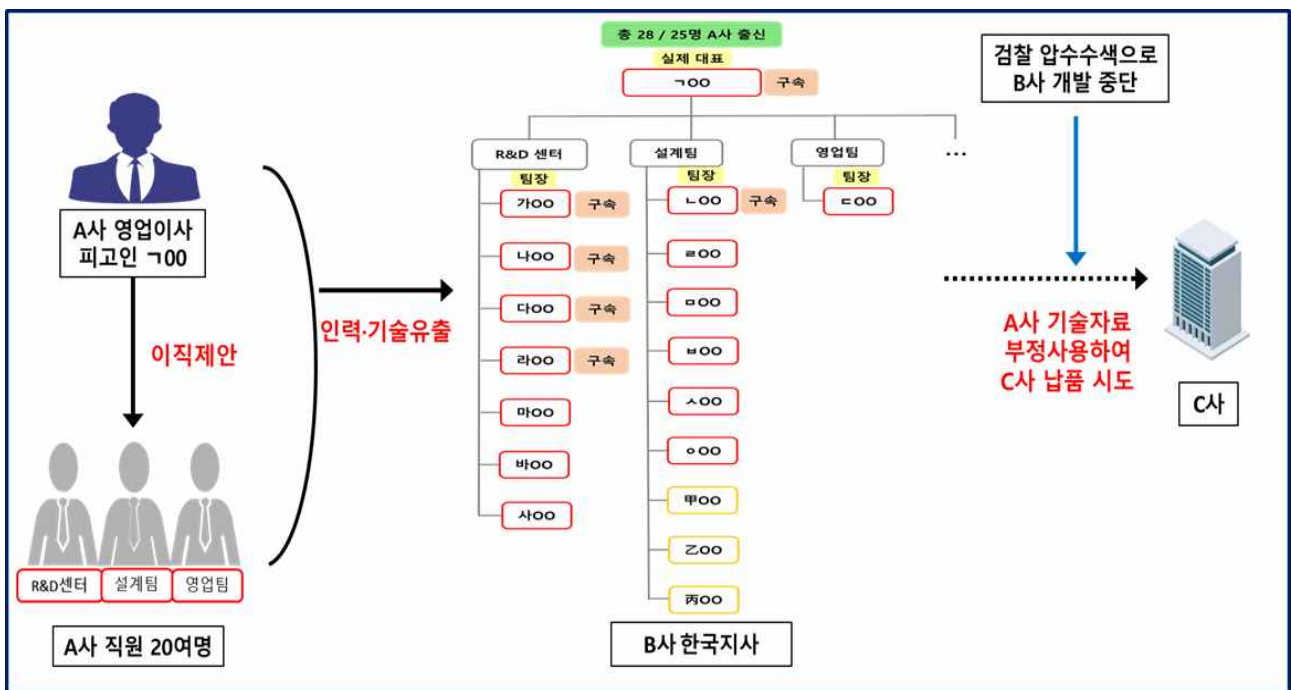
### IV 수사 결과 및 의의

#### 1. 국내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틈탄 계획적·조직적 기술유출 범행

- A사는 2002년 설립된 이래 2016년 3,000만 달러 수출을 달성하고, 2017년 코스닥에 상장되는 등 유망한 중소기업이었는데, 2021년 사모펀드에 인수된 후 경영이 악화되어 2022년 코스닥 거래가 정지됨

- ㄱOO은 C사 등 해외기업 상대 영업을 위해 A사가 2021년 영입한 자로, A사가 경영난을 겪게 되자 C사 및 중국 B사에 접근하여 자신이 A사의 엔지니어와 함께 이직하여 카메라모듈 검사장비 사업을 하겠다고 제안함
- ㄱOO은 A사의 R&D센터, 설계팀, 영업팀 등 장비개발, 해외영업 관련 A사의 핵심 엔지니어 등 20여명을 데리고 나와 B사 한국지사예 A사와 같이 R&D센터 등으로 조직을 구성하고, A사 기술자료를 대규모 유출한 후 B사 장비개발에 사용함

### <범행 구조도>



## 2. 신속한 압수수색으로 중국 회사의 장비 개발 중단

- 검찰은 국정원으로부터 첩보를 접수한 후 퇴사자들의 노트북, 이메일 등을 분석하여 범죄정황을 확인하였고, 신속히 B사의 국내 영업소 등 압수수색을 실시함
- 압수한 B사의 노트북, 외장하드에서 A사의 기술자료를 그대로 사용해 B사의 장비를 개발 중인 사실이 확인되었고, ㄱOO 등이 A사의 기술자료를 공유 및 사용하는 메시지 등 결정적 증거를 확인함
- B사는 검찰의 압수수색 이후 개발 업무를 중단하여 사실상 카메라모듈 검사장비 사업을 포기함

### 3. 회복할 수 없는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여 엄정한 처벌 필요

- A사의 2022년 총 매출은 약 488억 원인데, 그 중 C사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카메라모듈에 대한 검사장비가 총 매출의 약 76%를 차지함
- 700의 주도로 이루어진 A사 주요 임직원 20여명의 이직 및 기술유출 범행으로 A사는 C사와의 사업이 중단되어 추정 손실액이 1,000억 원이 넘는 등 회복할 수 없는 막대한 손해가 발생함

※ A사는 2024. 7. 상장폐지, 현재 회생절차 진행 중

#### V

#### 향후 계획

- 이 사건은 국내 중소기업이 경영난을 겪게 되자 조직적으로 회사 몰래 경쟁업체로 이직하면서 기술자료를 유출하고, 이직 후 유출한 자료를 사용하여 동종 제품을 개발한 것으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함
  - 이러한 범죄를 가볍게 처벌한다면, 중소기업은 기술을 개발할 동기가 없어지고, 경쟁업체가 어려운 상황에 처한 중소기업을 상대로 인재 영입을 빙자하여 기술을 탈취하는 것을 방지하는 결과를 초래
- 전 세계 카메라모듈 검사장비 산업에서 국내업체들이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, 특히 C사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카메라모듈에 대한 검사장비 그래버의 경우 국내 3개 업체가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는데, 국내 기술이 해외에 유출된다면 국가 경제에 큰 손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
- 서울중앙지검은 앞으로도 국내 중소기업과 국가 경제를 위협하는 산업기술의 국외 유출범죄에 엄정 대응할 예정임 ☑